

『세계사의 구조』와 『안티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사건적 교육의 해석적 비교¹⁾

김 영 철

충북대학교 교수

〈요 약〉

이 논문은 세계사적 단계들과 그 구분 원리를 제시하는 栢谷行人(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와 Deleuze와 Guattari의 『안티 오이디푸스』를, 사건을 보고하는 육하원칙이라는 공통항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비교한다. 평가적 비교의 전 단계로서의 해석적 비교는 두 저서의 텍스트적 해석과 비교,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석과 비교로 반복하여 두 번 시행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사건적 교육은 본성적 교육과 대비된다. 텍스트적 비교에 있어서, 1) 육하원칙의 What은 Kant와 Nietzsche적 Marx 활용, 2) Who는 교환하는 인간과 생산적 기계라는 현실적 주체, 3) When/Where는 교환양식과 기입양식이라는 사회, 4) How는 세계동시혁명과 분열 증적 과정이라는 혁명의 방도, 5) Why는 연합적 인간과 욕망해방적 비인간이라는 이상적 주체이다. 교육적 비교에 있어서, 1) 교육의 경로로서의 What은 자율적 윤리성과 능동적 힘, 2) 교육의 현실적 주체의 긍정성으로서의 Who는 이념적 긍정성과 실제적인 힘의 긍정성, 3) 교육의 사이-시공간으로서의 When/Where는 개체들 사이의 공약불가능한 소통적 시공간과 기계들 사이의 갈등적 시공간, 4) 이미-있음의 이상에 도달하는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How는 과거에 이미 있던 이상의 비자발적 회복과 현재에 이미 있는 과정의 완성과 돌파, 5)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Why는 코스모폴리턴과 위버멘쉬이다.

주요어 : 세계사의 구조, 안티 오이디푸스, 육하원칙, 사건적 교육, 해석적 비교

1)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세계사는 인류의 삶에 대한 기억이다. 그 기억은 시간적으로는 13,000년 전 또는 70,000년 전¹⁾에서 시작되고, 공간적으로는 오대양 육대주에 이른다. 인류는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모든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은 인류의 현재를 만들고 인류의 미래를 만들 중요한 사건들이다. 무수한 세계사적 사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 사회를 급변시킨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사회가 결코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특이점을 이루며, 그 사건의 전후로 세계사적 단계가 나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계사적 특이점은 현재의 인류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육사는 세계사의 교육적 측면으로서 세계사와 외연을 같이 한다. 외연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교육사가 세계사와 동일한 길이와 넓이를 가진다는 것이고, 측면이라는 말은 교육사가 세계사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세계사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사는 의당 세계교육사이다. 비유컨대, 세계사가 3차원의 입체라면, 교육사는 이 입체 전체를 교육적 측면에서 절단하는 2차원의 면이다. 이러한 교육사를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세계사적 단계들과 그 단계 구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로서 『세계사의 구조(SWH로 약칭)』(柄谷行人, 2010/2012)와 『안티 오이디푸스(AO로 약칭)』(Deleuze & Guattari, 1973/2014)를 들 수 있다.

일본어로 쓰인 SWH는 탄탄한 지적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 저서에 비견될만한 체계적 세계사 서술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국내에 번역 출간된 가라타니 고진의 저서들 20여권 가운데 SWH는 그의 오푸스 마그눔(opus

1) Diamond(1997/1998: 47)는 13,000년 전에, Harari(2011/2015: 18)는 70,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전자가 쓴 『총, 균, 쇠』나 후자가 쓴 『사피엔스』도 단권으로 세계사를 다루고 있지만, 세계사의 단계들과 그 구분 원리가 명료하지 않다. 물론 각 저서는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사를 서술하고 있다.

magnum)이라 할만하다. 이 말은 여러 산발적 저서들 중에 이 저서가 굳게 일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저작을 관통하는 지적 여정이 SWH에서 탁월한 성과로 집적되고 이후의 그의 다른 저작들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저서는 영역되어 2014년에 미국 Duke 대학교출판부에서 출판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어로 쓰인 AO는 68혁명에 대한 지성적 응답이었다. AO는 혁명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관계로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AO는 들뢰즈라는 철학자가 과타리라는 실천적 정신분석가를 만나 구조주의의 폐색을 돌파하는 결정적 지점을 이룬다. 바디우나 지젝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반대하겠지만, 과타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들뢰즈의 20여권의 저작에 있어서도 AO는 오푸스 마그눔이다. AO는 『천 개의 고원』(Deleuze & Guattari, 1980)과 동일하게 ‘자본주의와 분열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 저서는 『천 개의 고원』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작업이었다. 비유하여 비교컨대, SWH는 가라타니의 사상적 저수지이고, AO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사상적 고원이다.

이 논문은 SWH와 AO의 비교 연구이다(김영철, 2017; 2021). 비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비교 연구의 목적은 의미의 해석이거나 더 나아가 가치의 평가이다. 전자의 해석적 비교 연구보다 후자의 평가적 비교 연구가 더 어려운 과제이다. 김종욱(2002)의 『용수와 칸트』는 해석적 비교 연구, 박찬국(2013)의 『니체와 불교』는 평가적 비교 연구의 사례이다. 김종욱은 수미일관하게 비교되는 두 항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의미적 차이만을 드러낸다. 한편, 박찬국은 저서의 초반부에는 니체와 불교 각각의 의미 해석과 비교에 주력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불교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석적 비교 연구에 그친다. 다시 말하여, SWH와 AO 중에 어느 저서의 사상이 더 우월한가, 하는 평가를 유보한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고, 추후연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비교 연구의 방법, 특히 해석적 비교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두 항은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차이점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유사성은 형식적 하위 특질들로 세분되고 이를 공통항으로 하여 두 항이 비교될 수 있다. 이 하위 특질들에 따라 두 항의 차이가 드러난다. 요컨대 “양자의 유사점을 비교 논증의 최소한의 단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종욱, 2002: 17).

본 논문에서의 비교단위로서의 하위 특질은 다섯 가지이다. 두 저서를 비교하는 공통항으로서 맑스, 주체, 사회, 변혁, 이상 등의 다섯 가지 사항은 사건을 보고하는 육하원칙(5W1H)적 특성들에서 왔다.²⁾ 순서대로 What, Who, When/Where, How, Why에 해당한다. 첫째, 맑스의 활용방식에서의 비교이다. 세계사에 관하여 SWH와 AO는 ‘맑스’의 사상을 변경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둘째, 현실적 주체의 비교이다.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주체’를 ‘누구’라고 보는가? 셋째, 기존의 억압적 사회에 대한 견해에서의 비교이다. 변혁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언제/어느 곳’의 사회인가? 넷째, 혁명의 방도에 관한 비교이다. ‘변혁’의 방도로서 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다섯째, 이상적 주체의 비교이다. 두 저서는 혁명의 귀결로서의 ‘이상’적 주체를 ‘왜’ 제시하는가? 이 다섯 가지 비교항이 II 장의 각 절을 구성한다. 여기에 교육에 관한 비교가 추가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섯 번째 비교가 아니다. 교육에 관한 두 저서의 비교는 앞서 제시된 다섯 가지 사항의 비교를 교육의 측면에서 반복해야 한다. 교육사는 세계사의 부분이 아니라 측면이기 때문이다. 이는 III 장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2) 사건을 묻는 질문과 본질을 묻는 질문은 다르다. 후자는, 가령 ‘교육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지만, 전자는 ‘교육은 무엇을, 누가, 언제/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가?’라고 묻는다. 본질을 묻는 질문은 본성의 건축학적 관점을 따르고, 사건을 묻는 질문은 사건의 유체역학적 관점을 따른다. 이 논문은 세계(교육)사에 주목하기 때문에 사건의 관점과 질문을 택한다(김영철, 2013).

II. 『세계사의 구조』와 『안티 오이디푸스』의 비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SWH와 AO의 주요 개념들과 개념적 관련을 제시한다. SWH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호수적 교환양식(교환양식A), 재분배적 교환양식(교환양식B), 상품적 교환양식(교환양식C), 그리고 연합적 교환양식(교환양식D)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어느 교환양식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세계사적 단계가 구분된다. 그 단계는 미니세계시스템(AbcDs), 세계=제국(aBcds), 세계=경제(abCds) 그리고 세계공화국(abcDs)이다. 여기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는 하나의 지배적인 교환양식을, 소문자는 지배적이지 않은 교환양식의 공존을, ‘s’는 복수적 사회구성체의 체계를 표시한다. 연합적 교환양식과 세계공화국은 다른 교환양식들과 세계사적 단계와 동일한 지평에 있지 않고, 그것들의 ‘위’에 있다. 이것은 세계사가 지향할 기준점으로서의 규제적 이념이다. SWH에서 교환양식은 사회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며, 교환양식에 상응하는 표현체들은 상부구조를 구성한다.

AO는 원시 영토기계(Ptm), 야만 전제군주기계(Bdm), 문명 자본주의기계(Ccm)라는 사회기계들을 제시하는데, 그것들의 표면(사회체)에 욕망기계가 기입되는 방식에 따라 세계사적 단계를 구분한다. 이 표면은 각각 영토적, 전제군주적, 그리고 자본적 몸체이다. 욕망기계는 생산하는 기계로서, 실재적인 것이다. 사회기계는 생산되는 기계, 즉 기입하고 소비하는 기계로서, 재현적인 것이다. 욕망기계가 하부구조적이라면, 사회기계는 상부구조적이다. 사회기계는 표면과 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에서는 기입작용이, 심층에서는 억압작용과 주체산출작용이 이루어진다. 기입작용과 억압작용이 기입양식을 구성한다. 욕망기계의 생산, 사회체의 기입, 주체산출의 소비는 연결(생산의 생산), 분리(기입의 생산), 결합(소비의 생산)의 생산적 종합의 세 국면이다. 생산적 종합은 세계의 존재원리이다. 따라서 세 가지 거대 사회기계들은 각각 생산적 종합의 세 국면을 갖는다. 세 사회기계들은 하나의 욕망기계와 힘을

겨루는 길항관계에 있다. 욕망기계는 사회기계의 ‘아래’에 있다. 욕망기계는 사회기계에 종속되면서도, 사회기계를 생산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능동적 힘이다.

1. 맑스: 칸트적 자유와 니체적 힘

우선, SWH는 맑스의 생산양식 개념을 교환양식 개념으로 바꾼다. 그 결과, 가령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하부구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대신에 상품적 교환양식이 들어서게 되고, “신용에 의해 존재하는 종교적 세계”(SWH: 52), 즉 자본제 시장이 상부구조적 표현물로 설정된다. 맑스가 보는 사회구성체의 하부구조에서 생산력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생산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바꾸면서, 가라타니는 하부구조에서 전자를 탈각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관념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해석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기만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령, 인간을 수탈하는 국가가 자연도 수탈하는 최초의 집단인 것이다(SWH: 56).

SWH는 이제 변형된 맑스를 확장하여 네 가지 교환양식을 제시한다. 그 교환양식은 시대에 따라 다른 종교-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표현한다. 가령 호수적 교환양식의 상부구조적 표현체는 고중세에는 농업공동체이지만, 근대에는 네이션으로 되고, 상품적 교환양식의 상부구조적 표현체는 고중세에는 상업 거점도시이지만, 근대에는 자본제 시장으로 변모된다. 그런데 SWH의 핵심은 연합적 교환양식과 그 표현체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의 기원과 도래에 있다. 가라타니는 연합적 교환양식을 ‘호수적 교환양식의 고차원적 회복’으로 본다. 호수적 교환양식은 그대로 연합적 교환양식의 형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변형되어 회복된다. 맑스는 호수적 교환양식에 기반한 원시공동체를 도래할 공산주의 사회의 모델로 삼았다. 따라서 맑스는 그저 ‘회복’을 말할 수는 있어도, ‘고차원적 회복’을 말할 수는 없다. 가라타니는 바로 이 지점,

즉 맑스가 “유동적 단계의 사회와 정주적 씨족사회”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성을 중시한 반면 자유(유동성)를 무시했다는 점을 비판한다(SWH: 104). 연합적 교환양식과 어소시에이션은 부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 거기에는 자유의 계기가 필수적으로 요청(postulate)된다. 평등 이전에 자유를 요청하는, 정확히 말하여 자유로부터 오는 평등을 요청하는 가라타니의 사유는 Kant(1788/2009: 229-232)의 타자-요청적 윤리, 즉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이념의 존재를 실천적으로 불러들이는 윤리로부터 유래한다.

다음으로, AO는 존재를 생산과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는 맑스로부터 연원한 것이다(김재인, 2013: 86-95). AO는 존재=생산을 생산의 생산, 기업의 생산, 소비의 생산의 세 국면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생산 국면에 따라 역사적 단계를 나눈다. 요컨대, 사회구성체의 세 가지 역사적 단계들은 각각 세 가지 생산의 국면을 갖되, 그 사회구성체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 국면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외연성 또는 통일성, 심지어는 동일성을 주장한 것은 맑스 자신이었다. 산업과 자연의 동일성은 “생산의 근본 존재론”이라 부를 수도 있다(Granel, 1969: 305; 김재인, 2013: 88에서 재인용). 그런데 맑스는 하부구조의 결정적 요소로서의 생산이 욕망적 기계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맑스의 사회구성체의 이행은 생산양식의 내적 모순,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사이의 모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맑스는 생산수단을 생산관계의 지표로서, 외적인 것으로만 보고, 하부구조에 분열증자, 호모 나투라, 욕망기계, 미시적 무의식, 단순한 형식의 다양체가 포함된다는 것을 무시했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맑스가 가지고 있던 “변증법적 전제”(AO: 657)가 그로 하여금 하부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욕망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본다. 변증법은 개체적인(individual) 것이 특수한(particular) 것의 매개를 통해서만 보편적(universal)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한 것에 강조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수한

것은 성긴 그물 같아서, 개체적 욕망을 놓치고 만다. 맑스의 하부구조가 욕망 없는 생산이라고 하면, 이제 들뢰즈와 과타리는 그 자리에 욕망=생산을 두며, 그 반대의 극에 반-생산(‘기관 없는 신체’)을 둔다. 전자가 삶이라면, 후자는 강도=0의 죽음이다. 생산과 이 생산이 생산한 반-생산의 두 극은 분열증적으로 연결되면 욕망기계, 편집증적으로 연결되면 사회기계로 된다. 욕망기계가 가진 힘은 능동적(active)이고, 사회기계가 가진 힘은 반응적(re-active)이다. 그런데 능동적 힘은 항상 반응적 힘을 생산하기 때문에(Deleuze, 1962/2006: 111, 211 역자 주1) 이 두 힘은 분리될 수 없고 다만 우위를 다룰 뿐이다.

이상의 논의를 하부구조의 변형과 자유와 힘의 측면에서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맑스를 변형함에 있어서 SWH는 하부구조(생산양식)의 생산력(인간과 자연의 관계)을 생산관계(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래서 안출된 개념이 교환양식이다. 그리고, 가령 자본의 종교-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하여, 자본을 상품적 교환양식의 상부구조적 표현체로 취급한다. 한편, AO는 맑스의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특수한 것에 주목한 나머지 개체적인 것을 사상시켰다고 본다. 즉 맑스가 본 생산은 ‘욕망 없는 생산’이라는 것이다. AO는 욕망적 생산을 주장한다. 둘째로, SWH는 칸트의 윤리적 요청 이론으로부터 착안하여 연합적 교환양식의 핵심적 요소를 자유=유동성이라고 본다. 맑스는 물질적 평등에 너무 경도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AO는 니체의 힘 이론으로부터 착안하여, 생산과 반-생산 사이의 두 가지 연결을 능동적 힘과 반응적 힘으로 본다. 맑스는 사회적 투자들 속에서 계급 내지는 이해관계의 전의식적 투자에 머물러서, 욕망의 무의식적 리비도 투자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가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사를 자유의 윤리적 요청의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가, 아니면 힘의 능동성의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주체: 교환하는 인간과 생산적 기계

우선, SWH가 보여주는 교환양식의 세계사적 무대에는 교환하는 인간들이 배역으로 등장한다. SWH는 인간과 자연의 구분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교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가라타니는 자신의 교환 개념이 맑스의 생산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지만(SWH: 35), 정확히 말하면 맑스의 생산관계 개념을 교환양식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고 확장한 것이다. 가라타니에게 교환이란 인간관계이며, 교환양식은 한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들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지배적인 교환방식이다. 네 가지 교환양식이 가지는 교환의 인간관계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수적 교환은 점유권만 가진 사물의 주고받음, 즉 두 번의 교환 또는 증여이다. 호수는 평화를 창출하여 교역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복수(vendetta)를 위한 전투를 창출하여 중심적 권력의 탄생을 저지하기도 한다. 증여를 통해 평등한 인간이 형성되지만, 공동체적 속박으로 인하여 부자유한 인간이 형성된다. 둘째로, 재분배적 교환은 국가권력의 수탈과 재분배이다. 권력은 신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신민은 권력에게 세금을 납부한다. 거둬들인 세금은 신민에게 재분배된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불평등하고 부자유한 인간이 형성된다. 셋째로, 상품적 교환은 가치를 가지는 상품과 질권을 가진 화폐의 한 번의 교환이다. 이 교환은 소유권의 완전한 양도이다. 인간노동력의 상품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인간이 형성되지만, 자본의 이윤추구로 인하여 불평등한 인간이 형성된다. 넷째로, 연합적 교환은 국가나 자본에의 종속이 없는 인간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환이다. 따라서 연합적 교환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형성된다. 그런데 SWH가 말하는 인간은 개인적 개체이기도 하고 복합적 개체(colony)이기도 하다. 상품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가 도래하기까지 개인은 대체로 공동체나 국가와 같은 집단에 매몰되어 있었고, 상품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부터 집단으로부터 자율적인 개인이 강조된다. 집단과 개인은 방법론적으로만 구분되는 동일한 대상의 다른

측면이다. 그러나 개인적 개체와 복합적 개체는 존재적으로 분리된 주체들이다.³⁾

다음으로, AO가 보여주는 생산=욕망의 세계사적 공장에는 하나의 생산하는 욕망기계와 세 개의 생산된 사회기계들이 주력으로 등장한다. 욕망기계와 사회기계는 미시와 거시, 분자적인 것과 물적인 것, 요소적인 것과 집합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욕망기계에서는 분열증적 분자성이 강조되고, 사회기계에서는 편집증적 선분성이 강조된다. 생산은 기계적 우주의 자연적 경과이다. 본성적으로 동일하지만 병렬적인 욕망기계와 사회기계의 길항작용과 사회기계의 표면으로서의 사회체에 욕망기계가 기입됨에 따라 기계적 우주의 자연적 경과는 역사적 과정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과정(processus)’이라는 말은 ‘경과(procés)’와는 구분되어 사용된다(AO: 26). 가령, ‘역사적 과정’과 ‘자연적 경과’라는 말에서, 전자는 욕망이 생산-기입-소비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역사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우주적 운행 전체의 성격이 자연적 생산이라는 의미이다. 각 역사적 과정은 생산의 현실적 작업 국면, 즉 생산의 생산, 등록의 생산 그리고 소비의 생산이라는 세 가지 국면을 가진다. 그리하여, 생산적 기계는 하나의 생산하는 생산기계와 세 개의 생산된 사회기계, 즉 원시영토기계, 야만 전제군주기계, 문명 자본주의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상을 기본 단위와 단위들의 관계 측면에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WH의 기본 단위는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이다. 이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양식, 즉 교환양식에 따른 인간이다. 한편, AO의 기본 단위는 자연과 구분되지 않는 기계이다. 이 기계는 욕망기계와 사회기계로 대별된다. 둘째로, 단위 간의 관계를 보면, SWH는 교환하는 인간을 주체로 내세운다. 교

3) 복합적 개체는 국가나 단체와 같은 인위적이고 물적인 집단이 아니라, 복수의 개체가 연합된 단일한 상위 개체이다. 스피노자가 ‘자연학 소론(excursus on physics)’에서 말하는 복합체(composita)가 그것이다(Spinoza, 1677/1996: 42, Definition 참조). 개인적 개체도 더 작은 개체의 복합체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적 개체를 복합체의 최소 단위로 취급한다.

환의 성격은 교환양식마다 다르다. 한편, AO는 기계와 기계의 관계를 연결종합, 분리종합, 결합종합 등으로 부르며, 욕망기계와 사회기계, 즉 생산적 기계를 주체로 내세운다. 연결종합은 생산적 욕망의 자연적 경과를, 분리종합은 욕망기계의 사회기계와의 종속을, 그리고 결합종합은 그 잔여적 귀결 국면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를 평가해야 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은 교환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생산적 기계인가, 하는 것이다.

3. 사회: 교환양식과 기입양식

우선, SWH에서의 사회는 교환양식의 하부구조와 그 상부구조적 표현체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구성체는 세계시스템적 연결망에 속해 있다. 첫째로, 호수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는 자유가 제한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 공동체는, 자유롭고도 평등한 표박적 밴드사회가 기후 문제로 인하여 하구에 정주하여 만들어진 사회이다. 그 결과 농업혁명이 일어난다. 공동체 간의 교역을 위해서는 평화가 요구되는데, 증여는 부족 간의 평화를 창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대내적으로 공동체는 잉여의 축적으로 인해 계급적 격차가 벌어지고 우월한 인물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어 파괴될 수 있다. 이 또한 호수를 통하여 저지된다. 둘째로, 재분배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모두 제한된 사회이다. 추장사회가 왕권사회로 이행한 것이며, 잠재적 원국가가 현행화된 것이다. 폭력과 공포를 통한 수탈을 자행하는 국가는 백성에게 안전과 부의 재분배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조세를 제도화한다. 셋째로, 상품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는 자유의 증진과 평등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이다. 산업자본은 상품의 공간적 가치 차이에서 이윤을 남기는 상업자본과는 달리, 상품의 시간적 가치 차이에서 이윤을 남긴다. 산업자본의 핵심은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자의 소비자화에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

을 자본에게 팔 자유와 소비자로서 구매를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넷째, 아직 도래하지 않은 연합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는 자유로부터 오는 평등의 사회이다. 국가와 자본의 수탈구조는 폐기된다. 공동체적 증여는 고차원적으로 회복된다. 연합적 인간들이 설립한 어소시에이션이 지배적인 조직으로 된 사회이다.

다음으로, AO에서의 사회는 욕망기계의 생산적 하부구조와 사회기계의 기입적 상부구조로 구성된다. 세 가지 사회기계는 욕망기계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하기 위해서, 억압작용(심층적 원리)과 기입작용(표면적 메커니즘)을 통해 욕망기계를 자신의 표면(사회체)에 기입한다. 첫째, 원시 영토기계는 혈연에 의한 기억을 결연의 기억으로 대체하기 위한 잔혹한 입사식을 거행하며, 사물을 코드에 따라 엄격히 분할하는 체계를 작동시킨다. 이는 부채(debt)의 원리에 따른다. 요컨대, 원시 영토기계는 부채의 원리 하에 잔혹체계와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욕망기계를 지배한다. 둘째, 야만 전제군주기계에서 전제군주는 신과 직접 혈연관계를 맺은 절대적 지위에 오르며, 원시 영토기계로부터 물려받은 공동체와 초코드적 결연을 맺는다. 이는 공포와 복수, 즉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원리에 따른다. 요컨대, 야만 전제군주기계는 르상티망의 원리 하에 공포체계와 초코드를 이용하여 욕망기계를 지배한다. 셋째, 문명 자본주의기계에서 자본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를 신자로 거느리는 신의 지위에 오른다. 이는 죄책감(culpability)의 원리를 따른다. 요컨대, 문명 자본주의기계는 죄책감의 원리 하에 냉소체계와 공리계를 이용하여 욕망기계를 지배한다. 이상의 상부구조적이고 재현-표상적인 세 가지 기입양식은 하부구조적이고 실재적인 욕망기계를 복속시키는 반응적 세력을 형성한다.

이상을 교환과 양식의 지위, 사회를 주도하는 요소, 양식의 공유와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WH의 교환양식은 하부구조적이지만, AO의 기입양식은 상부구조적이다. 교환양식의 상부구조에는 그 교환양식

의 표현체들이 있고, 기입양식의 하부구조에는 생산하는 기계 또는 욕망기계가 있다. 둘째, SWH는 교환양식D를 세계사를 조망하는 이념적 지위로 제시 하되, 그 원천을 교환양식A에서 찾는다. AO는 욕망기계를 세계사의 저류를 흐르는 생산하는 힘의 담지자로 제시한다. 교환양식D나 욕망기계의 역사적 사례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SWH는 도덕적 이상에 호소하고, AO는 실재적 힘에 호소한다. 셋째, SWH에 제시된 네 개의 교환양식은 모두 교환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AO에 제시된 세 개의 편집증적 기입양식은 생산의 분열증적 과정과는 이질적인 것이다. SWH에서 교환양식은 그 표현체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일관성을 보이지만, AO에서 기입양식은 생산적 기계를 왜곡시키는 균열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평가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의 교환양식과, 욕망기계와 사회기계를 아우르는 생산적 기계 중에서 어느 것이 사회를 규정짓는 근본요인일까, 하는 것이다.

4. 변혁: 세계동시혁명과 탈영토화의 분열증적 과정

우선, SWH에서는 근대세계시스템(세계=경제)을 극복하여 세계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건을 “세계동시혁명”(SWH: 433)이라 부른다. 세계공화국은 자본-국가-네이션의 보로메오 연결고리를 끊어 내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적 근대세계시스템의 상황과 각 사회구성체 내부의 지배적 힘 아래서, 일개 사회구성체의 혁명은 외세의 개입, 또는 각 구성체 내부의 자본-국가-네이션의 개입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혁명은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SWH는 ‘봉기’라는 전통적 혁명의 이미지를 뒤틀어 ‘증여’라는 새로운 혁명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증여는 ‘순수증여’라 할 것이다(中澤新一, 2003/2004: 26-29). 증여는 의무감과 부채감에 의해 지탱된다. 그런데 순수증여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 순

수증여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너무도 혼란 현상이기도 하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 하나의 어떤 사회구성체가 UN(United Nations)에게 군사적 주권을 증여한다. 코스타리카는 그 한 예이다(김상혁, 2018: 90). 군비증강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평화공영의 현실적 방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한 나라가 군사주권을 UN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의 힘을 얻고, 여러 나라가 그러한 수범을 따라 군사주권을 증여하는 일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것이 SWH에서 주장되는 세계동시혁명이다. 이러한 SWH의 주장이 현실적 방안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단계의 120년 주기설(SWH: 388)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세계적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증여는 화폐나 국가권력에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고조된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주권의 증여=방기가 필요하며, 이 증여의 힘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UN의 군사-경제적 시스템(안전보장이사회와 IMF)은 패권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점에서 UN은 세계공화국이라는 이상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벌어질지 모르는 세계전쟁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전쟁이 더욱 고도의 국가연방을 실현시키리라는 Kant(1784/2009)의 낙관론(“자연의 간지”)에 기초하고 있다.

다음으로, AO는 한 사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탄압, 위계, 착취, 예속이 그 자체로 욕망되도록 하는 것”(AO: 208)이라고 본다. 따라서 욕망의 억압을 욕망하지 않는 욕망은 이러한 사회의 기도를 본질적으로 위협한다. 아무리 작은 욕망일지라도 일단 욕망이 있게 되면 사회의 기성질서가 의문시된다. 욕망은 혁명을 ‘바라지’ 않는다. 욕망은 그 자체로, 저도 모르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바람으로써 혁명적이다. “욕망을 혁명의 심급으로 내세운다면, 그 까닭은 자본주의사회가 이해관계의 많은 표출은 견딜 수 있어도, 욕망의 그 어떤 표

명도 견딜 수 없기에, 욕망의 표명은 심지어 유아원 수준에서조차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구조를 폭파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AO: 623-624) 자본주의사회는 분열증자를 양산하고 다시 이들을 분열증환자로 만드는 일을 되풀이한다. 이는 자본이 모든 코드를 파괴하여 분열증적 흐름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얻고자 하면서도, 자본기계의 불량부속품인 분열증자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혁명은 참다운 욕망의 발현, 즉 탈영토화의 분열증적 과정의 완성과 돌파이다. 탈영토화에는 상대적이고 부정적인 것, 상대적이고 긍정적인 것, 절대적이고 제한적인 것, 그리고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의 네 가지가 있다. 절대와 상대는 잠재성과 현행성의 구분에 더해 있다. 제한과 무제한은 절대 속에서, 부정과 긍정은 상대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탈영토화 쪽으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AO: 533).”라고 할 때, 가장 멀리 간 탈영토화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다. 분열증적 과정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도주선을 완성의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는 분자적 선에 비유될 수 있다. 분열증적 돌파를 실행하는 분열증자(schizo)는, 그 돌파에 실패한 분열증환자(schizophrenia)와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만이 혁명적이다(AO: 624). AO는 분열증적 과정의 완성과 돌파를 도모하는 세력을 주체적 개체(“주체집단”)로 본다. 예속적 개체(“예속집단”)와는 달리 주체적 개체는 “인과성과의 단절, 혁명적 도주선을 유일한 원인으로 삼는”(AO: 620) 욕망을 지닌다. 이와 대비하여 예속적 개체는 편집적 선분성을 원인으로 삼는 욕망을 지닌다. 이 예속적 개체에는 분열증환자 외에 편집증자, 변태, 신경증자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논의를 극복대상과 혁명의 방도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WH는 근대세계시스템을 극복대상으로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세계시스템은 자본-네이션-국가의 삼위일체적 결합체들의 전세계적 조직망이다. 이 결합체에서 으뜸가는 힘은 자본이기에, 일차적 극복대상은 자본으로 된다. 한편, AO는 편집증적 자본의 사회체를 극복대상으로 본다. 이 사회체는 분열

증자를 양산하면서 동시에 분열증환자를 격리시킨다. 둘째, SWH는 군비의 증여를, AO는 분열증적 과정의 완성과 돌파를 혁명의 방도로 본다. 호수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의 인간관계 원리는 증여이다. 개별 사회구성체가 군사주권을 UN에게 이양하는 것은 증여이지만, 이 증여는 순수증여를 지향한다. 군비는 되갚을 의무를 발생시키는 선물로 내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대가 없이 방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분열증적 과정은 사회체에 의해 억압과 탄압을 받아 온 욕망적 생산을 해방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고 해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혁명적이다. 이 과정에 완성은 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평가적 질문을 하나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군사주권의 방기와 분열증적 과정 중에 어느 것이 혁명의 실질적 방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5. 이상: 연합적 인간과 욕망해방적 비인간

우선, SWH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연합적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사회구성체이고,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은 연합적 조직이며, 이러한 연합적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은 연합적 인간이다. 이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은, 그 조직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는, 개인적 개체이거나 복합적 개체이다. 교환양식D가 지배적인 사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 교환양식이 지배적인 조직과 인간은 현존한다. 이러한 연합적 조직은 ‘어소시에이션’이라 불리며, 그 근대적 전형은 협동조합이다. 이 조직의 확산과 지배가 이루어질 때 세계공화국에 근접하게 된다. 맑스는 “노동자 자신이 노동을 조직하는 연합(assoziieren)을 자본이 협업과 분업을 조직하는 결합(kombinieren)과 구별한다.”(SWH: 349, 464주8) 이에 따라 SWH는 협동조합을 노동조합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본다. 전자는 자본주의의 외부로 나가기 위한 연합적 인간의 연합조직이고, 후자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자본과 투쟁하기 위한 노동자의 결합조직이다(SWH: 349-350). 협동조합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를 지양하고자 하

지만, 노동조합은 노동력상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SWH: 350).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연합적 인간들은 자율적이고 평화주의적 인간이다. 이러한 자율과 평화의 특성은 가입 탈퇴의 자유와 1인 1표의 평등이라는 협동조합의 조직운영원칙의 특성과 상보적이다. 연합적 조직이 연합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과 그 인간이 조직을 강고하게 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한다. 연합적 인간은 자립적인 개인적 개체일 수도 있고, 개방적이고 무지배적인 복합적 개체일 수도 있다. 철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개인적 개체의 역사적 사례이다. 그는 이오니아 자연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적 자유의 목소리를 비자발적으로 듣는다. 소위 “다이몬의 목소리”(柄谷行人, 2012/2015: 203)이다. 그는 개인적인 것이야말로 세계시민적이라는 생각으로 광장-시장으로 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때론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한편, 이소노미아(isonomia)라는 정치철학을 신봉했던 이오니아의 폴리스 인민들은 복합적 개체의 역사적 사례이다. 이소노미아는 어떤 형태의 지배, 가령 다수자의 지배(데모-크라시)도 피한다. 그것은 ‘무-지배’이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식민도시의 이동성에 기반한다(柄谷行人, 2013/2013: 27-28).

다음으로, AO가 이상적 사회상과 주체상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이미 변혁의 과정에 ‘완성(completion)’의 형태로 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완성은 초재적인 것도 초월적인 것도 아니다. 전자는 내재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대립하며 내재적인 것의 외부에 있다. 후자는 내재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추후에 그것을 포섭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전자는 폭력에 의한 지배이고, 후자는 법에 의한 지배이다(Negri & Hardt, 2009/2014: 568). 탈영토화의 분열증적 과정은 완성을 잠재적 실재로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붕괴’ 또한 가능성 현실로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여 분자적 선은 혁명적 도주선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선분적 선으로 전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분열증적 과정은 그 과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과정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성을 긍정하고 초인적 실험을 시행하는 욕망해방의 과정이다. 이 욕망해방의 과정은 인간 주체의 파괴를 전제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분열증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이다. 그는 뷔히너가 묘사한 렌즈처럼 자연이 되고(AO: 24), 니체가 스스로 느끼듯이 역사가 된다(AO: 50-53). 자연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인간, 즉 호모 나투라와 호모 히스토리아는 욕망을 해방하려는 인간은 비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러한 비인간의 다른 말이 위버멘쉬이다. Artaud(1974/2003)는 분열증자 Gogh를 ‘사회가 자살시킨(le suicidé de la société)’ 화가라고 말한다. 아르토는 정신과 의사 가세와 동생 테오가 사회적 탄압의 대리자로서 고흐를 자살에 이르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고흐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심하시라.”(Artaud, 1974/2003: 94)고 말한다. 고흐의 평화로운 풍경화의 밑에는 욕망적 생산이라는 “과열된 공장”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고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작품들은 후세의 사람들을 분열증으로 유혹한다. 유혹이 성공하려면 매혹되는 자의 마음에 이미 유혹하는 자의 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흐에 끌리게 된다면 이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고흐의 분열증이 완성의 형태로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거짓된 가능성으로서의 맹아가 아니라 진실된 실재성으로서의 완성이다. 완성은 과정을 앞으로 영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위로 도약하는 것이다. Nietzsche(1883~1885/2003: 321)가 말했듯이, 대지의 힘에의 의지는 중력의 영속화가 아니라 중력에 반하는 도약이다. 대지의 완성은 ‘가벼움’이다. 한편 분열증자는 Negri와 Hardt가 말하는 “대중(multitude)”과 유사할 것이다(윤수중, 2014: 19 주7). 대중은 제국의 지배에 균열을 내면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이로운 형태들을 장려하는 복합적 개체이다. 대중은 스스로 주체성을 형성하고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즉, 대중은 자신을 갱신하고 사회적 관계의 제도

적 형태를 구현해 나간다(Negri & Hardt, 2009/2014: 16-17).

이상의 논의를 지향점과 이상적 주체 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WH에서 연합적 조직과 인간이 타격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동력의 상품화이다. 지향점은 연합적 조직의 확산과 연합적 인간의 지배이다. 한편, AO에서 분열증자가 타격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동적이고 편집증적인 자본적 몸체이고 지향점은 욕망해방적 비인간의 완성이다. 둘째, SWH에서는 자율적이고 평화주의적 인간, 즉 연합적 인간이 이상적 주체로 제시된다. 연합적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 조직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는 연합적 인간은, 사화(privatized)된 개인이나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자립화한 개인적 개체이거나, 다수지배적이거나 동원된 집단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무지배적인 복합적 개체이다. 한편, AO에서는 욕망해방적 비인간이 이상적 주체로 제시된다. 이 비인간도 개인적 개체와 복합적 개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정체성을 탈피하는, 주체적이고 예술적인 개인이고, 후자는 지배권력에 안주하지 않는, 대항적이고 다중심적인 복합체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율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연합적 인간과 욕망해방적 비인간 중에서 어느 쪽이 이상적 주체인가, 하는 평가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III. 교육에 관한 비교

교육에 관해서 SWH와 AO의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II장에서 비교했던 다섯 가지 공통항의 교육적 해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맑스-What을 교육의 경로로, 주체-Who를 교육의 현실적 주체로, 사회-When/Where를 교육의 시공으로, 변혁-How를 교육의 방법으로, 이상-Why를 교육의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두 저서의 교육에 관한 비교를 수행한다.

첫째, 맑스-What, 교육의 경로 문제. 이 문제는 교육의 대상을 묻는다. 교육의 대상은 학생과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학생은 교사와 교육을 함께 하는 도반이기에, 대상은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행동특성과 내용 중에서 내용을 행동특성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면 학생은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행동특성은 내용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학생의 주체적 교육역량을 긍정할 수 있다. 결국 교육의 대상은 내용에 한정되며, 그 내용은 학생이 걸어갈 교육의 ‘경로’로 된다.

우선, SWH는 칸트적 영감 아래서 맑스를 변형한다. SWH가 도입한 것은 칸트의 물 자체를 “흔해 빠진 타자”(柄谷行人, 2004/2013: 108)로 해석하고 이로부터 자유를 끌어내는 것이다.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는 인식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던 자유는 실천의 세계에서 요청적으로 살아난다. 자유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 윤리적 근거이자, 자신의 개별적 준칙이 보편적 법칙에 부합할 정언명령의 근거이다. 칸트가 말하는 이성은 본질적으로 ‘실천이성’으로서, 그의 윤리법칙은 인간존재를 법칙에 대한 존경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인격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경로는 이러한 자율적 윤리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AO는 니체적 영감 아래서 맑스를 변형한다. AO는 세계사를 욕망적 힘의 길항에 따라 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우열을 다투는 두 힘의 성격이다. 그 두 힘은 분열증적 과정이 행사하는 능동적 힘과 사회가 행사하는 반응적 힘이다. 힘을 가지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힘은 선과 악을 넘어서 ‘이로움(Vorteil)’을 추구한다. 힘의 본성은 힘 자체의 상승과 이로부터 도래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힘이 능동적인 것이다. 반응적 힘은 힘의 상승과 기쁨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단지 능동적 힘을 분리, 분해하고 그 능력을 박탈할 뿐이다. 교육의 경로는 반응적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동적 힘에서 찾아질 수 있다.

요약하면, 교육의 내용으로서 SWH는 자율적 윤리성을 제시하고, AO는 능동적 힘을 제시한다. 자율적 윤리성이라는 규제적 이념과 능동적 힘이라는 실재적 원인에 따라 세계사에 드러나는 교육적 양상들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평가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경로를 자율적 윤리성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 힘에서 찾을 것인가?

둘째, 주체-Who, 교육의 현실적 주체 문제. 주체는 현실적 주체와 이상적 주체로 나뉜다. 여기서의 전자만 문제로 삼고, 후자는 다섯 번째 ‘교육의 방향’에서 논한다. 현실적 주체는 세계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이지만, 이 결정적 세계의 틈새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세계에 작용한다. 이 작용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작용’만이 교육이다.

우선, SWH는 세계사를 이끄는 현실적 주체를 교환하는 인간으로 본다. 교환양식A, B, C, d(D의 현실태)에 있어서 교환하는 인간을 각각 증여인, 권력인, 화폐인, 연합인이라고 불러보자. 이들은 각기 어떠한 긍정적 작용을 하는가? 여기서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윤리적 이념에의 실현 여부에 따른다. 증여인은 평등의 작용을, 화폐인은 자유의 작용을 한다. 다만 전자의 평등은 자유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의 자유는 소극적이고 수단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권력인은 자유의 작용도 평등의 작용도 하지 않는다. 연합인은 자유로부터 오는 평등의 작용을 한다. 요컨대, 권력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교환하는 인간은 긍정적 작용을 하되, 연합인은 온전한 긍정적 작용을, 증여인과 화폐인은 부분적인 긍정적 작용을 한다.

다음으로, AO는 세계사를 이끄는 현실적 주체를 생산적 기계로 본다. 생산적 기계에는 생산하는 기계로서의 욕망기계와 생산되는 기계로서의 사회기계가 있다. 욕망기계의 긍정적 작용에 대한 믿음과 주장은 AO의 전체에 걸쳐 개진된다. 여기서 긍정적 작용은 욕망기계의 능동적 힘이 가지는 파괴하고 배

제하며 창조하는 역할을 말한다. 육화된 욕망기계로서의 분열증자는 ‘교육기계’라 부를 만하다. 반면에 사회기계는 반응적 힘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계는 욕망기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기계에 의해 분열증자가 붕괴된 결과, 분열증환자, 변태, 편집증자, 신경증자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분열증자의 능동적 힘에 기생하는 반응적 힘을 형성할 뿐이어서 현실적으로 긍정적 작용을 하지 않지만, 원래 분열증자가 생산한 세력이라는 점과 분열증자가 우열을 다투고 힘의 본래적 능동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긍정성을 갖는다.

요약하면, 현실적으로 누가 교육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SWH는 증여인과 화폐인은 부분적으로, 연합인은 온전하게 교육을 한다고 본다. 한편, AO는 사회기계와 이 사회기계가 잔여로 남긴 분열증환자, 변태, 편집증자, 신경증자가 반응적 힘을 가지지만, 잠재적으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욕망기계와 분열증자는 현행적으로 긍정성을 가진다고 본다. 긍정성의 기준은 SWH의 경우에는 윤리적 이념의 실현이고, AO의 경우에는 능동적 힘의 발현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평가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현실적 주체는 증여인, 화폐인, 연합인이라는 인간인가, 아니면 욕망기계와 사회기계와 같은 기계인가?

셋째, 사회-When/Where, 교육의 시공간 문제. 이 문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역사적 장을 묻는다. 교육은 어떤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언제나/어디서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답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 없다. 특정한 시공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특정한 시공간은 비유컨대, 육면체의 모서리와 같다. 이 모서리에서는 두 면이 나뉘면서 결합한다. 교육의 시공간은 절합(articulation)-시공간 또는 사이-시공간이다.

우선, SWH는 교육의 시공간을 타자와 소통하는 시공간이라고 본다. 여기서

타자는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인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인간을 ‘규칙을 공유한 자’로 규정하게 되면,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말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타자는 복합적 개체일 수도 있고 개인적 개체일 수도 있다. 맑스는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복합적 개체 간의 교통공간을 “사회”라고 부른다(柄谷行人, 2004/2013: 157).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개체적 개인 간의 소통공간을 전형적인 언어학습 사태로 본다(柄谷行人, 2004/2013: 109). 교육은 규칙을 공유한 개체들 사이의 전달하기-전달받기가 아니라,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개체들 사이의 가르치기-배우기이다. 그런데 SWH가 말하는 교통이나 소통이 순기능적이거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목숨을 건 도약(salto mortale)이 항상 개입된다. 문화 간의 접변이든, 문화 내의 전수이든, 그것이 교육으로 되려면, 규칙을 공유한 인간들 사이의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인간들 사이의 규칙 가르치기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은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개체들이 만날 때, 그 사이-시공간에서 일어난다.

다음으로, AO는 교육의 시공간을 욕망기계와 사회기계가 조우하여 힘을 겨루는 시공간으로 본다. 욕망기계는 존재론적 차이를 생산하는 능동적 힘을 갖고, 사회기계는 이 차이를 동질화하는 반응적 힘을 갖는다. 비유컨대 욕망기계는 도주선을 유일한 원인으로 삼는 분자적 선이라면, 사회기계는 이 도주선을 억압하고 분자적 선을 절편화하는 선분적 선이다. 결국 현실은 욕망기계의 고통적 세계가 아니어서, 욕망기계는 사회기계와 다투면서만 도주선을 탈 수 있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387). 차이의 창조는 항상 기성의 것을 파괴한 뒤에 이루어진다. 교육이 욕망기계와 사회기계의 사이-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욕망의 창조적 단절은 사회의 절단하는 억압적 힘에 균열을 내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요약하면, SWH는 교육의 시공간으로 개인적 개체 간, 그리고 복합적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사이-시공간을 제시하며,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개체

들 사이의 소통을 강조한다. 물론 이 소통은 항시 실패할 가능성에 직면한다. 한편, AO는 욕망기계와 사회기계 간에 이루어지는 투쟁의 사이-시공간을 제시하며, 힘의 능동성으로서의 차이의 생산을 강조한다. 물론 투쟁은 전의식적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리비도적 투자관계에서도 일어난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평가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이-시공간은 공약불가능한 개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능동적 힘과 반응적 힘을 가진 기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넷째, 변혁-How, 교육의 방법 문제. 이 문제는 교육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묻고 있다. 여기서 ‘혁명적’이라는 말은 교육이 현실적 상태에서 이상적 상태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행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행의 방법에 대한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 이상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상적 측면으로서 ‘이미-있음’의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은 이 이미 있는 이상의 전면화 방도로 된다.

우선, SWH는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SWH: 40)을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는 변혁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교환양식의 교육적 측면을 교육양식이라고 하면, 교육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이 교육의 방법이 된다. 특히 ‘회복’이 이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교환양식A는 증여를 인간관계의 원리로 삼기에, 교육양식A는 증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교환양식A에는 결여된 것, 즉 자유의 계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전의 시대(구석기 시대)의 교환양식a를 참조해야 한다. 이것이 ‘고차원적’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따라서 교육의 이상은 교육양식a로 되며, 이것은 순수증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교육의 방법과 직접적 관련을 갖는 ‘회복’에 대하여 가라타니는 프로이트를 원용하여 억압된 것의 강박적 회귀를 말한다(SWH, 103-104). 교육양식a라는 규제적 이념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존했으나 잃어버린 것이

강박적으로 회귀한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방도는 과거에 이미 있던 이상의 비자발적 회복으로 된다. 여기서 ‘비자발적’은 의도한다고 하여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하여 잊혀지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자의 의미는 칸트의 구성적 이념과 후자의 의미는 규제적 이념과 관련된다. 교육이 자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비자발적 회복이 의미하는 바는, 교육은 자신이 의도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일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AO는 사회기계의 반응적 힘에 대하여 욕망기계의 능동적 힘이 우월해지는 것을 사회변혁의 방도로 본다. 그것이 “분열증적 과정의 완성”(AO: 534)과 “분열증자의 돌파”(AO: 598)이다. 과정의 완성은 과정에 완성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완성은 ‘이미-있음’으로서의 이상인데, 이는 지나온 과거에도, 도달할 미래에도 있지 않고, 바로 현재의 과정에 내속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은 완성이 그 과정에 잠재적 실재로서 내속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 깨달음과 더불어 요구되는 것은 사회기계의 기입체, 즉 토지, 전제군주, 자본의 충만한 몸체를 돌파하려는 실천적 선택이다. 이는 사회기계가 자행하는 억압과 탄압의 반응적 힘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 대항실천은 악령이 전한 악무한의 영원회귀(Nietzsche, 1882/2005: 314-315)를 벗어나 차라투스트라적 정언명령에 따를 때 가능하다. “네가 의욕하는 것, 그것을 네가 영원회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원하라.”(Deleuze, 1962/2001: 132) 그리하여 교육의 방법은 현재에 이미 있는 능동적 힘을 깨닫고 반응적 힘에 대항하는 것으로 된다.

요약하면, SWH는 연합적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서 과거적 이미-있음의 이상을 비자발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제시하고, AO는 분열증자가 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서 현재적 이미-있음의 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평가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혁명적 교육의 방법은 과거적 이상을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 완성을 깨닫고

돌파를 실천하는 것인가?

다섯째, 이상-Why, 교육의 방향 문제. 이 문제는 교육을 왜 하는지 묻고 있다. 이 질문은 교육의 물리적 원인, 즉 ‘~ 때문에’를 묻기보다는 ‘~을 위하여’를 묻는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동기보다는 논리적 이유를 묻는다. 이유는 목표나 표적으로서의 이상적 주체이다. 교육은 어떠한 이상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우선, SWH는 교환양식D가 지배적인 조직의 연합적 인간을 이상적 주체로 제시한다. 교육양식D의 역사적 사례로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자립적 개인적 개체와 이오니아의 폴리스 주민들과 같은 복합적 개체는 조직 속에서 타인을 불가피하게 수단으로 이용할지라도, 그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는 인간이다. 조직의 기능을 위해서 인간은 때로 수단 시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인간이 윤리적 맥락에서는 목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을 목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 타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세계가 필연적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 자유는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자유는 현사실이라기보다는 자유로워지라는 당위적 명령이다. 이 정언명령은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한 궁극적 보루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이상적 주체는 타인과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윤리적 주체이다. 평등은 이 자유로부터 온다. 가라타니는 자유를 ‘유동성’과 동일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자유는 유동적인 시공간, 즉 국제적 교류 속에서 생겨난다. 자유의 제한은 정주생활이 시작된 이후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소극적이고 강요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자유를 불러왔다. 소크라테스는 아크로폴리스보다는 아고라를 택했고, 이오니아의 도시국가는 정주보다는 식민을 택했다. 아고라는 시장이고, 식민도시는 교역을 하는 항구도시이다. 유동 또는 이동은 자유의 물적 조건이다. 자유는 이처럼 인간적 교류와 경제적 교역이 빈번한 시공간에서 탄생한다. 소크라테스와 이오니아 인민과 같은 연합

적 인간은 국제적 교류의 장에 몸담는 코스모폴리턴이다(김상혁, 2018: 98-99).

다음으로, AO는 교육의 방향을 탈영토화의 분열증적 과정의 완성과 돌파를 구현한 욕망해방적 비인간에 둔다. 사회기계에 종속된 욕망은 자신의 욕망의 억압조차 욕망한다. 욕망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소극적 출발점에 불과하다. AO가 제시한 적극적 이상적 주체는 비인간이다. 자연과 하나가 된 호모 나투라(homo natura)와 역사의 모든 특이점과 하나가 된 호모 히스토리아(homo historia)가 비인간이다. 우리에게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의 억압을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 이외의 모든 것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상적 주체를 AO는 ‘분열증자’라 부른다. AO에는 처음부터 자서전을 쓴 슈레버, 뷔히너의 렌츠, 베케트의 몰로이, 아르토의 고흐 등 많은 분열증자가 소개된다. 그 외에도 휠덜린, 클라이스트, 터너, 니체, 멜빌, 로렌스, 밀러, 케루악, 버로스, 울프 등의 예술가들이 거명된다. 이들은 자신이 분열증자이거나, 정신분석가나 정신병리학자보다 분열증에 대해 더 잘 아는 작가들이다. 교육의 이상적 주체로서의 분열증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초인, 즉 위버멘쉬이다.

요약하면, SWH는 이상적 주체로 연합적 인간을 제시하며, 그 다른 이름은 코스모폴리턴이다. 이는 교육의 이상적 주체이다. 코스모폴리턴은 단지 유동적 시공간에 거하는 노마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는 윤리적 인간이다. AO는 이상적 주체로 분열증자를 제시하며, 그 다른 이름은 위버멘쉬이다. 위버멘쉬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극복해나가는 시지푸스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극복하는 비인간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평가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합적 인간으로서의 코스모폴리턴과 욕망해방적 비인간으로서의 위버멘쉬 중에서 어느 주체가 교육적 이상에 합당한가?

IV. 결론

사건을 보고하는 육하원칙(5W1H)에 따라 SWH와 AO를 해석적으로 비교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맑스 사상의 활용 면(What)에 있어서, SWH는 칸트적 자유를, AO는 니체적 힘을 발굴하여 제시한다. 둘째, 세계사를 이끄는 현실적 주체 면(Who)에서, SWH는 교환하는 인간을, AO는 생산적 기계를 제안한다. 셋째, 변혁 대상이 되는 억압적 사회의 면(When/Where)에서, SWH는 하부구조적 교환양식에 따른 사회상을, AO는 상부구조적 기입양식에 따른 사회상을 제시한다. 넷째, 혁명의 방도 면(How)에서, SWH는 세계동시혁명, AO는 탈영토화의 분열증적 과정을 제안한다. 다섯째, 이상적 주체 면(Why)에서, SWH는 연합적 인간을, AO는 욕망해방적 비인간을 제시한다.

이상의 5가지 공통항에 따른 SWH와 AO의 견해를 교육 면에서 다시 반복 하면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맑스-What을 교육의 내용으로 해석할 때, SWH는 자율적 윤리성을, AO는 능동적 힘을 교육의 경로로 삼는다. 둘째, 주체-Who를 교육의 현실적 주체의 긍정성으로 해석할 때, SWH는 증여인, 화폐인의 부분적 이념과 연합인의 전면적 이념을 긍정적으로 보고, AO는 욕망기계의 현행적인 능동적 힘과 사회기계의 잠재적인 반응적 힘을 긍정적으로 본다. 셋째, 사회-When/Where를 교육의 사이-시공간으로 해석할 때, SWH는 개인적 개체들 사이 또는 복합적 개체들 사이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교환적 시공간을, AO는 욕망기계와 사회기계 사이의 투쟁적 시공간을 제시한다. 넷째, 변혁-How를 교육이 이미 존재하는 이상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때, SWH는 과거에 이미 있던 순수증여의 교환양식^a의 비자발적 회복을, AO는 현재에 이미 있는 분열증적 과정의 완성과 돌파를 제시한다. 다섯째, 이상-Why를 교육의 목적으로 해석할 때, SWH는 코스모폴리턴을, AO는 위버멘쉬를 제시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공통항 각각의 말미에 본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이기도 한 다음과 같은 평가적 비교 질문을 제기하였다. 세계사를 자유의 윤리적 요청의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가, 아니면 힘의 능동성의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가? 세계사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은 교환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생산적 기계인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의 교환양식과, 욕망기계와 사회기계를 아우르는 생산적 기계 가운데서 어느 것이 사회를 규정짓는 근본요인인가? 군사주권의 방기와 분열증적 과정 중에 어느 것이 혁명의 실질적 방도인가? 자율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연합적 인간과 욕망해방적 비인간 중에서 어느 쪽이 이상적 주체인가?

이 질문들은 교육과 관련하여 재해석되어 다음 다섯 가지 평가적 비교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 또한 추후 연구과제이다. 교육의 경로를 윤리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힘에서 찾을 것인가? 교육의 현실적 주체는 증여인, 화폐인, 연합인이라는 인간인가, 아니면 욕망기계와 잠재적으로 긍정성을 가진 사회기계라는 기계인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이-시공간은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개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능동적 힘과 반응적 힘을 가진 기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혁명적 교육의 방법은 과거적 이상을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 완성을 깨닫고 돌파를 실천하는 것인가? 코스모폴리턴과 위버멘쉬 중에서 어느 주체가 교육적 이상에 합당한가?

본 연구는 SWH와 AO를 비교함에 있어서, 다음의 한계이자 추후연구 과제를 가진다. 첫째로, 다섯 가지 공통항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런데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SWH와 AO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층은 칸트와 니체라는 철학적 논의의 층이다. 둘째 층은 맑스를 다루는 두 저서의 사회과학적 논의의 층이다. 셋째 층은 세계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역사적 논의의 층이다. 이러한 다층을 고려하면 두 저서의 비교는 좀 더 복잡해질 것이다. 게다가 북두칠성이 평면에 있지 않듯이, 다섯 가지 공통항도 입체적일 수 있다. 입체적이라는 것은 건축학적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비유컨대 각 공통

향이 음악의 5성부를 구성하듯이 대기적 흐름을 이룰 수도 있다는 뜻이다.

둘째로, 이 연구는 해석적 비교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비교 연구방법론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는 평가적 비교 연구임은 서론에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비교 연구방법론 그 자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김진(2004), 柄谷行人(2004/2013), Žižek(2006/2009)이 보여준 비교 연구방법론은 추후에 고찰될 가치가 있다. 김진은 ‘칸트와 불교’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비교의 기준 자체의 독립성을 생각하게 한다. 가라타니는 ‘칸트와 맑스’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비교의 시너지적 효과를 생각하게 한다. 지젝은 ‘프랑스대혁명과 독일관념론’을 비교한다. 이 연구는 공통점이 없는 비동질적인 것들의 비교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참고문헌

- 김상혁(2018).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체계에서 발전의 양상과 주체의 의미에 관한 교육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 김영철(2013). 사건으로서의 교육: 율하원칙에 따른 『천 개의 고원』의 교육학적 해석. 교육철학연구, 35(2), 25-48.
- 김영철(2017).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에 나타난 교환양식과 교육의 양상. 아시아교육연구, 18(4), 539-561.
- 김영철(2021). Deleuze와 Guattari의 『안티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기입양식과 교육의 양상.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257-274.
- 김재인(2013). 들뢰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논문.
- 김종욱(2002). 용수와 칸트. 서울: 운주사.
- 김진(2004). 칸트와 불교. 서울: 철학과현실사.
- 박찬국(2013). 니체와 불교. 서울: 씨아이알.
- 윤수중(2014). 네그리, 하트의 <제국>, <다중>, <공통체>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 柄谷行人(2004). トランスクリティーク. 이신철 역(2013). 트랜스크리티크. 서울: b.
- 柄谷行人(2010). 世界史の構造. 조영일 역(2012). 세계사의 구조. 서울: b.
- 柄谷行人(2012). 哲學の起源. 조영일 역(2015). 철학의 기원. 서울: b.
- 柄谷行人(2013). 自然と人間. 조영일 역(2013). 자연과 인간. 서울: b.
- 中澤新一(2003). 愛と經濟のロゴス. 김옥희 역(2004).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물신숭배의 허구와 대안. 서울: 동아시아.
- Artaud, A. (1974). Van Gogh le suicidé de la société. 조동신 역(2003). 나는 고흐의 자연을 본다. 서울: 숲.
- Deleuze, G. (1962). Nietzsche et la philosophie. 이경신 역(2001). 니체와 철학. 서울: 민음사.
- Deleuze, G. (1962). Nietzsche et la philosophie. Tomlinson, H. (2006)(Trans.). Nietzsche and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Deleuze, G.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Deleuze, G., & Guattari, F. (1973). L'anti-Oedipe. 김재인 역(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민음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김재인 역(2001). 천 개의 고원:

-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Diamond, J. (1997). *Guns, germs, and steel*. 김진준 역(1998).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 Harari, Y. N. (2011). *Sapiens*. 조현욱 역(2015). 사피엔스. 파주: 김영사.
- Kant, I. (1784).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 이한구 역(2009).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이한구 역(2009). 칸트의 역사철학(pp.23-45). 파주: 서광사.
- Kant, I. (1788).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백종현 역(2009). 실천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 Negri, A., & Hardt, M. (2009). *Commonwealth*. 정남영, 윤광영(2014). 공통체. 고양: 사월의책.
- Nietzsche, F. (1887). *Die flöhliche Wissenschaft*. 안성찬, 홍사현 역(2005). 즐거운 학문. 서울: 책세상.
- Nietzsche, F. (1883~1885). *Also sprach Zarathustra*. 정동호 역(200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니체전집 13). 서울: 책세상.
- Nietzsche, F. (1885~1887). *Nachgelassene Fragmente Herbst 1885 bis Herbst 1887*. 이진우 역(2005).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니체전집 19). 서울: 책세상.
- Spinoza, B. (1677). *Ethica*. Curley, E. (1996)(Trans.). *Ethics*. Penguin Books.
- Zizek, S. (2006). *The parallax view*. 김서영 역(2009). 시차적 관점. 서울: 마티.

Abstract

An interpretive comparison of the education as event in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and *Anti-Oedipus*⁴⁾

Kim Young-chu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thesis tries to compare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with *Anti-Oedipus* in the textual context, and to re-compare in the educational context. I mean by the education an event which contrasts starkly with an essence. It adopts 5W1H, a general reporting form of an accident or event, as the distinctive features at twice comparisons.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not evaluative but interpretive comparison. In the textual context, the thesis discusses, 1) as WHAT, the use of Marx from Kant vs. Nietzsche's point of view, 2) as WHO, the actual subjects of the exchanging human vs. the productive machine, 3) as WHEN/WHERE, the society of the modes of exchange vs. the modes of inscription, 4) as HOW, the revolutionary means of the simultaneous revolution of the world vs. the schizophrenic process, 5) as WHY, the ideal subjects of the associative human vs. the non-human of liberation of desire. In the educational context, the thesis discusses, 1) in the WHAT as educational way, autonomous morality vs. active power, 2) in the WHO as the affirmity of actual subjects, that of the ideal idea vs. that of real power, 3) in the WHEN/WHERE, as the in-between time-space of education, the incommensurable communicative situation of humans vs. the conflictive of machines, 4) in the HOW, as the educational method of achieving the ideal, the involuntary restoration of the already-had ideal vs. the now-have completion and break-through of the schizophrenic process, 5) in the WHY, as the aim of education, cosmopolitan vs. overman.

Key words: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Anti-Oedipus*, 5W1H, education as event, interpretive comparison

4) 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Research Yea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0

논문투고일자: 2021.03.02.

논문심사일자: 2021.04.20.

게재확정일자: 2021.04.27.